미래사회 과학과 마음 조명한다

한마음과학원,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10월 5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한마음과학 세계화 교류 일환
독일 후터 교수 기조강연 진행
대행 선사 조명 연구논문 발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래사회 과학과 마음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행 선사가 1996년 설립한 한마음과학원은 한마음과학의 체계화, 세계화,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연구회 운영 및 학술세미나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2027년)을 앞두고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 대중화를 주창한 대행 선사의 뜻에 따라, 외국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불교와 한마음사상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 학술대회에는 대만 자제공덕회의 치엔 테린 교수를 초청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에는 베트남의 호치민대 '종교와 신앙연구소' 소장 호앙 티 란 교수를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독일, 캐나다 등 해외학자들의 논문 발표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트 후터 교수의 '대행 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세션1에서는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 한마음선원 신도 설문을 중심으로(유정오 이반성초등학교 교사, 진복선 한마음과학원 회원, 허기준 전남대 교수)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 '지혜로운 마음'을 중심으로(최명희 경북대 강사)가 발표된다.

세션2에서는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 위빠사나를 중심으로(이광숙 동방문화대학원대 미래교육원 책임교수)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박소진 신한대 교수) △마음챙김과 대행 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글렌 최 세네카 폴리테크닉 교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 발표 토론자로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한스욕 에플레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부교수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4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진다. 한마음과학원이 주인공 관법을 활용해서 진행해 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자의 경험과 진행자의 경험을 각각 질적 연구한 결과가 2편 발표된다.

또한 교사들이 직접 초등학교 현장에서 주인공 관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 온 경험에 대해서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도 발표되며, 한마음과학원의 교육학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는 '한마음 교육학 이론화' 연구는 올해 교사론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은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최근 젊은 세대들이 명상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주제들 또한 명상을 통해 대행 선사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 발표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기대했다.


명승 지정 예고된 영취산과 흥국사 전경.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명승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9월 9일 지정예고
진달래 군락 경관 높게 평가

진달래 군락지와 어우러진 경관으로 유명한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영취산의 기암괴석, 수계 등 빼어난 지형이 진달래 군락지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 자체로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산 정상부에서 골명재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해의 해상풍경, 여수반도의 전경 등 다양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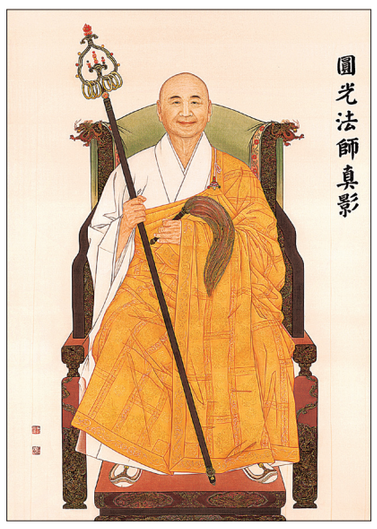
또한,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興國寺)는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흥국의 염원을 담고 있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홍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여수 흥국사 일원은 영취산의 지형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식생군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선명상, 선사 진영 통해 마주하다

홍나연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선명상과 함께한 선사진영전'
9월 23일~10월 1일 전시 열려



홍나연 소장이 복원·재창작한 '원광 법사 진영'.

고승진영은 불교 전래 이후 덕망이 높은 고승을 추앙하는 숭배신앙으로 중국 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걸쳐 성립되고 발전했다. 한반도의 고승진영은 9세기 중엽 당에서 귀국한 도의 선사(道義禪師)에 의해 선종이 전래하면서 진영의 제작과 봉안이 성행했다.

특히 선종은 선사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조사력을 기원했다. 그러기에 선사의 진영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증표로써 법통의 확인과 수계(授戒)의 목적, 역대 스승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종파와 사찰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널리 봉안됐다. 선종 고승진영의 맥을 계승한 진영 전시가 열린다.

홍나연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명상과 함께하는 선사진영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 선지식의 선 수행법을 현대적 정서로 새롭게 정립한 '선명상 프로그램'의 탄생을 기념하고 오랜 역사의 위기에서도 불법을 지키고 소아를 넘어 대중을 위한 '이고득락'을 실천 수행한 우리 선지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6~7세기 파격적인 계율과 방편으로 통일을 견인하고 '자리이타'의 대승사상을 구현한 원광법사를 역사적인 사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재창작했다. 이는 홍 소장의 박사학위 논문인 '〈원광법사진영〉과 그 복원 연구(2022)'의 소산으로 복원하기까지 근간이 되는 대승사상 연구와 출초, 채색에 이르는 과정을 불교교학, 고고미술사학, 불교회화의 전공 심사위원으로부터 검증을 거쳐 복원됐다. 이와 함께 전시회에서는 조선 후기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진작시킨 근현대 선사들의 진영과 수월관음보살도 등 총 17개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홍 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법은 형체가 없기에 신영(神影)을 남겨 지계와 선정의 귀감으로 삼는다'는 옛 선현의 가르침대로 새롭게 궁구한 선지식들을 관조하며 그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금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 소장은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와 불교회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불교미술학 석사, 불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개인전을 12회 개최한 홍 소장은 현재 불교미술문화연구소·한국전통진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세계불학硏 '원효 단간본' 학술대회

9월 21일 동국대 법학만해관서

원효 스님(617~686)의 저서 가운데 단간본을 중심으로 저술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 9월 21일 동국대 법학만해관 163호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제26차 학술대회 '분황 원효의 단간본 연구 II'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학의 지위를 국학 혹은 한국학의 지평 속에서 확립하고, 우리 인문학의 위상을 불교학의 지형 속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원효 스님의 현존 20여 종의 저술은 170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저술한 불교 전적을 집성한 '한국불교전서' 제1책(신라시대편)과 '한국불교전서' 제15책(보유편 제5책)에 불완전한 단편잔간(短篇殘簡) 즉 단간본으로 수록돼있다. 하반기에는 '반야심경소' '해심밀경소' '십문화쟁론' '대승기신론이장의' '대승기신론별기'를 중점으로 다룬다.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반야심경소〉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이수미 덕성여대 철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해심밀경소〉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김영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초빙교수가 '분황 원효 〈십문화쟁론〉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고은진 제주대 철학과 학술연구교수가 '분황 원효 〈대승기신론이장의〉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대승기신론별기〉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주제로 발제한다. 논평은 김은서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박서연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학술초빙교수, 배경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학술초빙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도욱 스님, 김영미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상담심리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김내영 기자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4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2024.9.1 - 10.25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hfm@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논문접수 '24.9.1~'24.10.25 → 1차심사 결과발표 '24.11.4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24.11.15

우수논문 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최우수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1팀	1팀	200만원	400만원
장려상	2팀	2팀	100만원	40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5

접수 및 문의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 학회 사무국
이메일 : tosok.hfm@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